

# 숨어있는 금산의 보물을 찾아서

## 1. 목적 및 배경

-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에서 남해에 위치한 금산의 자연 생태계와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해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와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 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프로그램 분야 : 역사·문화해설
- 프로그램명 : 숨어있는 금산의 보물을 찾아서
- 대 상 : 청소년 및 일반인
- 운영기간 : 연중 상시운영 (단 신청예약 필요)
- 운영형태 : 신청시 운영
- 장 소 : 남해 금산 일원
- 주요내용 : 국립공원 소개, 남해 금산의 생태계와 역사·문화
- 소요예산 :
- 참 가 비 : 무료

## 3. 홍보계획

- 참가자 모집 : 국립공원 홈페이지, SNS를 활용한 모집
- 참가자 접수 방법 : 국립공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이메일, 전화 접수
- 사업성과 홍보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홍보

## 4. 평가계획

- 만족도 조사 : 본사 주관 온라인 만족도 조사

## 5. 첨부

- 프로그램 개요 및 시나리오
- 현황사진 2장 원본(각 사진 용량 3MB 이상)

# 금산의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서...

활동장소	금산탐방로
소요시간	약 100분
참가대상	청소년 및 일반인
참가인원	4명~20명/해설사 1명

<b>활동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의 자연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을 전달.</li> <li>해설사와 탐방객 간의 인사, 간략한 일정 전달.</li> <li>'약속'을 통해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 시 정해진 규칙을 전달 .</li> </ul>
<b>관련교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없음</li> </ul>
<b>준비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크, 카메라, 자연놀이 체험(밭줄, 도화지, 풀 등)※계절에 따라 체험 변경</li> </ul>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놀이 시 자연물을 꺾거나 따지 않고 주워서 활용하도록 주의</li> <li>탐방로 이동 중 안전에 유념, 샛길출입 금지 및 미끄럼 주의</li> </ul>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만남과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첫 만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li> <li>자연환경해설사 소개 및 국립공원 소개</li> <li>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li> </ul> </li> </ul>	10분
전개 (해설체험 및 자연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금산 보물을 찾아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공원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li> <li>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일까요?</li> </ul> </li> <li><b>탐방객 자연자원, 역사문화 자원 탐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리암입구 주차장부터 금산 정상을 거쳐 보리암까지 구간 내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자원 해설 청취</li> </ul> </li> </ul>	8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탐방 내용 정리 및 해설 청취 후 기념사진 찍기</b></li> </ul>	10분

## 남해금산 보물을 찾아...? 보물아 어딴니...?

### 1코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찾아주신 탐방객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여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000 자연환경해설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2개의 국립공원이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에 해상·해안 국립공원 중 최초로 국립공원에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어떻게 선정 되었을까요...? ‘답변 듣기’

예..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꽃이 핀 식물이나, 곤충과 같은 동물은 우리의 친구이니, 꺾거나 괴롭히지 않습니다.

둘째, 쓰레기가 있으면 잘 썩지 않아 산이 힘들어 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먼저 주워요.

셋째, 산에 있는 돌이나 문화재 등에 낙서하면 안 되겠죠!

넷째, 돌이 예쁘다고 가지고 나오면 될까요, 안될까요? 자연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멋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봐야 하겠죠!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아무리 예뻐도 꽃 한 송이 돌멩이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답니다.

### 세부내용

금산은 남해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며, 빼어난 자연조각품과 경관으로 아주 유명하며, 따뜻한 해안성 기후대에 속해 있지만, 남쪽 해안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활엽낙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고 희귀 식물인 히어리, 칠보치마, 대홍란, 석곡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계곡부의 울창한 숲지대에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멸종위기2급인 팔색조를 비롯해서 긴꼬리딱새와 같은 희귀 여름철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 주신 여러분들께 이곳 남해 금산의 보물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물을 찾아 움직여 볼텐데요 다들 이동하는 동안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방할 코스는 여기서부터 보리암과 금산 정상으로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보리암 매점 앞을 지나 금산 정상을 오른 후, 보리암까지 탐방하는 구간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대표적인 식물들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m 이동 지점, 데크 앞)

이곳에 보시면 금산 정상부를 대표하는 키가 큰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데크 뒤편에 사슴뿔처럼 아름다운 수피를 가진 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나무는 노각나무입니다. 노각나무는 잎이 떨어진 겨울엔 비단처럼 곱고



(노각나무의 수피)

광택이 나는 사슴뿔을 닮은 밝은 갈색의 얼룩무늬 수피가 금방 눈에 띄고,



(만개한 노각나무 꽃)



(노각나무에 핀 꽃)

여름에는 꽃이 귀한 시기에 동백꽃을 닮은 하얀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탐방객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아름다운 노각나무지만 성장이 너무 느려 뒤에 보이는 지름 20cm 정도의 노각나무는 수령이 80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느리다 보니 노각나무는 재질이 단단하고 변형이 잘 안되어 예로부터 가정집에서 제사 때나 절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기의 최고급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벌목을 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곳 남해 금산과 같이 100년 이상된 노각나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숲이 전국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노각나무 나이테 비교)

(사진설명: 노각나무와 소나무의 나이테 비교. 노각나무의 나이테가 훨씬 촘촘하여 성장속도가 느림을 알 수 있다.)

노각나무가 더 소중한 이유가 한가지 더 있는데, 노각나무는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한반도 특산종입니다. 그래서 학명도 korea가 들어간 Stewartia koreana입니다.

사슴뿔을 닮은 독특한 무늬의 수피와 큼직한 하얀꽃이 아름다워 잘자란 아름드리 노각나무는 사시사철 탐방객의 눈길을 끄는 멋진 나무이며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깨우쳐줍니다. 노각나무 아름다움의 진면목을 우리가 오래전에 알았다면 우리 주위의 많은 산들에서 쉽게 아름드리 노각나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국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노각나무 숲들이 잘 보존되어 많은 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 많은 노각나무 숲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바람으로 노각나무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00m 이동 지점, 오르막길 중간)

오르막길 양옆으로 수피가 약간 갈라짐이 거의 없고 어두운 회색인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때죽나무입니다.

5월이 되면 하얀꽃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진한 향기가 나는데 꽃잎이 두툼하고 하나로 연결된 통꽃으로 일주일 이상 피어있어 탐방객들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만개한 때죽나무 꽃)



(꽃이 피기 전 때죽나무)

때죽나무는 이름의 유래가 독특합니다. 꽃이 지고나면 그 자리에 콩알보다 큰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그 열매를 으깨어 연못이나 냇가에 뿌리면 물고기들이 뚱뚱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하는 나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600m 이동 지점, 바다 조망)

자 다음 보물을 찾아 움직여 볼까요?



(사스레피나무 흰꽃)



(사스레피나무 분홍꽃)

여기에서는 남쪽 바닷가에서만 볼 수 있는 늘 푸른 나무인 사스레피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스레피나무는 키가 작은 관목이지만 훌륭한 생존전략으로 금산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스레피나무의 멋진 생존전략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 생존전략은 바로 꽃향기입니다.



(사스레피나무 열매)

꽃이 피었을때 사스레피나무 옆을 지나면 찌릿한 화장실 또는 거름냄새가 강하게 코를 자극합니다. 이 때 코를 막지 않고 계속 숨을 들이쉬면 향이 좋은 꽃향기도 섞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스레피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이른 봄 일찍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다양한 향기를 섞어놓은 듯한 꽃향기를 뽐내서 파리, 나비, 벌 종류를 한꺼번에 모두 초대해 꽃가루받이 확률을 높여서 가을이면 가지에 작은 콩알만한 까만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열매는 먹을 것이 부족한 한 겨울에 성숙하여 숲속에 살고 있는 새들과 설치류의 귀중한 먹이가 되고 그 동물들의 배설물을 통해 멀리멀리 씨앗을 퍼뜨립니다. 1월, 2월이면 사스레피나무 아래 낙엽이 들썩들썩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들쥐들이 낙엽 사이에 떨어진 사스레피나무 열매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런 쥐들을 잡기 위해 사스레피나무 근처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멸종위기동물 2급인 삿을 이 곳 금산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쥐를 잡기 위해 기다리는 삿)

남해안 바닷가 산이면 어디든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스레피나무지만 먹이가 귀한 1,2월에 많은 숲속의 동물들에게 소중한 열매를 주렁주렁 만들어 숲생태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숲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스레피나무가 쓸데없는 잡목 취급을 받으면서 너무 쉽게 제거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로 사스레피나무가 가득차 겨울에도 진녹색인 뾰뾰한 숲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스레피나무의 생태적인 중요성을 알고 소중한 나무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이 탐방로에서 확트인 남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

여러분이 내려다보고 있는 저기 모래 해변과 솔숲 방풍림이 아름다운 바닷가는 남해군에서 자랑하는 상주은모래비치라는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의 섬은 목섬이며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다고 해서 목섬입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이곳보다 더 잘 보이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m 이동 지점, 보리암 매점 앞)

그럼 이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장소보다 더 넓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금산의 첫 번째 보물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태조 기단)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바위가 들은 서 있고 하나는 누워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바위는 삼불암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에 이곳에서 백일 기도를 드렸다는 설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바위가 미륵불과 같다 하여 삼불암이라고 하는데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이곳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던 마지막 날 새벽에 그 당시에는 누워있던 세 개의 바위 중에서 두 개가 일어서고 마지막 바위가 일어설 찰나에 뒤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 기도를 멈추자 마지막 바위가 일어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세 개의 바위가 모두 일어섰다면 대국(지금의 중국)의 천자가 될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하나의 보물은 찾았는데 오늘 몇 개나 찾을 수 있을지 볼까요... 여러분 저 바위 보이시나요... 모양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꼭 윗사람에게 절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로 두 번째 보물, 대장봉과 형리암입니다.



(대장봉과 형리암)

대장봉은 보리암 바로 뒤에 우뚝 솟은 큰 바위로서 웅장하고도 위엄있게 창공을 찌르고 서 있는 모습이 대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 아래 대장봉을 향해 마치 허리 굽혀 절하는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는 예전의 지방 관리들 이름을 따서 형리(刑吏)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상쪽으로 이동하면서 무슨 보물이 있나 볼까요...? (이동 중)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숲의 대나무들은 신이대라고 합니다. 예전 전쟁을 할 때 화살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대 숲 사이로 금산이 만든 멋진 분재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커다란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보이시죠? 둥글둥글한 바위와 어울려 꼭 머리를 감싼 머리카락처럼 보이기도 하는 멋진 자연분재입니다. 이 나무는 바위에 잘 붙어 자라는 줄사철나무라고 합니다.



(줄사철나무)

그리고 여기 바위의 넓은 면을 보시면 빼곡히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 금산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마음속 염원을 담아 자기 이름을 새기고 간 흔적들입니다. 이 석각들 중에서 오른쪽에 가장 크고 깊게 새겨진 이 석각을 대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사 조병현 (巡察使 趙秉鉉)’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순찰사는 지금의 도지사 격인 관찰사가 겸직했던 고위관직이었습니다. 이 석각은 1835년경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석각이 작은 글씨들의 석각과 겹쳐져 있습니다. 기존의 석각위에 더 크고 깊은 글씨로 덧새겼음을 알 수 있어서 씁쓸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바위에 오랜시간 동안 석각들이 생기면서 발생한 자리다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갈나무 원거리)



(신갈나무 근거리)

정상에 가까울수록 자주 보이는 이 나무는 신갈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낙엽이 지는 참나무가 여섯 종류가 살고 있는데 도토리모양과 나뭇잎 그리고 표피로 나무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신갈나무는 여섯 참나무 중에서 떡갈나무 다음으로 잎이 크고 잎에 항균 기능이 있어 예전에 신발 바닥에 깔아 사용했다고 해서 신갈나무라고 하다가 발음하기 편하게 신갈나무로 불리게 됐답니다.

어느덧 정상 바로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왼쪽 버선 모양의 바위가 두 개 보이시죠... **세번째** 보물 문장암입니다.

문장암은 생긴 모양이 꼭 신발을 닮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이곳에 와서

목혜(나막신)를 벗어 놓고 가서 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입니다. 새겨진 글씨는 유홍문상금산(由虹門上錦山) 즉, “홍문(쌍홍문)을 거쳐서 금산에 오르다” 또는 “홍문이 있어서 금산이 으뜸이다”라는 의미로 조선 중종 때 주세붕 선생 일행이 남겼다고 합니다.



(문장암)

자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망대가 **네번째** 보물 남해금산의 정상인 망대입니다.



(망대)

그럼 이제 망대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금산 정상(망대)은 해발 705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변의 육지와 도서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군사적으로 중대한 상황을 알려주는 봉수대가 설치되었고 전국 5개 봉화가 전달되는 거선 중 제2거선에 속하는 최남단의 봉수대였다고 합니다. 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에 불을 지폈던 5개의 연대가 있었고, 위급한 정도에 따라 불의 수를 1화-5화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금산에서의 신호는 창선대방산으로, 이것은 다시 삼천포 각산 혹은 여수 돌산 봉수대로 연락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감싸듯 어깨한 섬과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해안선, 잔잔한 물의 흐름은 큰 호수를 연상하게 합니다. 왼편에는 창선-삼천포대교가 보이고 그 옆으로 삼천포 시가지와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보입니다. 사천시의 대방과 남해 창선을 연결하는 창선-삼천포 대교는 총연장 3.4km로 2003년 4월 준공되었으며 삼천포대교, 초양대교, 늑도대교, 창선대교, 영개교 총 5개 교량이 제각기 다른 공법으로 시공되어 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멀리 통영의 사랑도와 옥지도 등 섬들 사이로 예로부터 아름다운 뱃길이었던 한려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통영시에 속하는 사랑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 하며, 약 1.5km 의 거리를 두고 윗섬과 아랫섬, 수우도의 세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윗섬에는 옥지의 산에 비해 높이나 규모는 작지만 산행코스나 암릉미에 있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지리망산, 일명 '사랑도 지리산' 이 솟아있다.



(사랑도 상도~하도 다리)

저기 앞에 옆으로 길다란 섬이 보이십니까? 네~ 저 섬은 옥지도라는 섬입니다.



(옥지도)

옥지도는 모두 1000여 가구의 주민이 살만큼 규모가 큰 섬이어서 여름 한때 물려오고, 물려가는 피서지가 아닌, 사시사철 언제 찾아와도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섬이기도 하지요. 옥지(欲知)는 "알고자 하거든"이라는 뜻으로 섬 이름처럼 묘한 끌림이 있습니다.

옥지도 왼편으로 더 가까이 삼각뿔 형태로 보이는 섬은 두미도입니다.



(두미도)

오른편으로는 가까이 소치도(환경부 특정도서 제34호)가 있고, 멀리는 수평선 바로 아래 금산 38경의 하나인 세존도(환경부 특정도서 제33호)가 있습니다.



(소치도)



(세존도)

세존도는 석가세존이 금산에서 돌배를 타고 쌍흥문을 통과해 내려와 이 섬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상주 해수욕장에서 직선거리로 25.68km나 떨어져 있지만, 날씨가 좋으면 아득히 세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에는 한복판에 원형으로 된 해상 동굴이 있고 섬 전체가 바위이며 나무도 식수도 전혀 없는 무인도(無人島)입니다. 남해에서는 가뭄이 심할 때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을 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민간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는 여수 쪽의 섬과 육지가 포근하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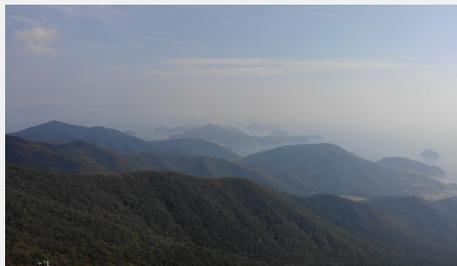
그리고 망대 바로 밑에 보이는 바위들이 문장대와 천마암입니다.



(멀리 보이는 문장대와 천마암)

문장대는 큰 바위 위에 놓여있는 조그만 네 개의 바위 모습이 네 명의 선비가 머리를 맞대고 글을 읽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문장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천마암은 오른쪽에서 보면 돼지머리 같이 생겼으나 왼쪽에서 보면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두꺼비 '마(蟻)'자를 써서 천마암이라고 부릅니다.

육지도 방면에 집들이 많이 보이는 바닷가 항구가 미조항이며 남해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 그리고 먼 바다와 맞닿아있어 멀치잡이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조항은 미륵불(彌)이 도와주는(助) 마을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망대에서 본 미조항)

여기까지 금산 정상에서의 해설을 마치고 헬기장 입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남해군은 삼자가 유명 합니다. 유자, 치자, 비자. 하지만 지금은 기상이온과 수익성 부족으로 유자 외 다른 나무들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 유명한 것이 마늘입니다. 마늘도 현재는 다른 곳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만 지역 특산물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제 보물을 몇 개나 더 찾을지 움직여 보시죠...

금산 정상부에는 봄이면 군락을 이루며 피는 대표적인 두가지 키작은 풀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3월 하순부터 4월초까지 낙엽이 지는 나무 아래로 땅바닥까지 햇볕이 들어올 때 추운날씨에도 넓적한 잎을 내고 수만송이 연보라빛 꽃을 피우는 얼레

지 꽃밭입니다.



(얼레지가 올라오는 모습)

(얼레지 군락지)

겨울이 끝나기 바쁘게 새순을 내고 꽃을 피운 수많은 얼레지들은 나무에 새순이 돌아 땅바닥에 닿는 햇볕이 대부분 가리워질 때쯤이면 벌써 열매를 맺어 한해를 마무리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을 나누어 살아가는 식물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족도리풀입니다. 하트 모양의 잎에 흰얼룩무늬가 있는 개족도리풀은 심장 모양을 닮은 잎새가 반으로 접혀 올라와선 이내 펼쳐지고, 그 잎을 살짝 들춰 보면 초콜릿색의 고운 꽃이 땅바닥에 붙을 듯 숨어서 피어 금산 정상부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족도리풀이라고 할까요?

꽃의 모양이 예전 전통혼례때 신부가 머리에 쓰던 족두리를 닮아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잎에 무늬가 없으면 족도리풀, 흰 무늬가 있는 것은 개족도리(섬족도리풀)이라고 합니다.



(개족도리풀)

금산에는 이른 봄이 되면 다른 나비보다 빨리 활동하는 애호랑나비가 있는데, 호랑나비보다 크기가 작으며 날개에는 노란색, 주황색, 검정색 무늬가 있습니다.



(애호랑나비)

애호랑나비는 개족도리풀이나 족도리풀 잎 뒷면에 알을 낳으며 깨어난 애벌레가 이 잎만을 먹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개족도리풀이나 족도리풀이 군락을 이루는 곳에서 애호랑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개족도리풀이 사라진다면 예쁜 애호랑나비의 모습도 보기 힘들겠죠?

우리가 만나는 하나하나의 생명체들은 생태계의 많은 구성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립공원에서는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취해서는 안되며, 작은 풀꽃

하나, 곤충 한 마리도 보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보물을 찾아서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큰 바위가 보이시죠... 화엄봉이라고 합니다. 화엄봉 바로 옆 이 곳은 금산, 보리암 너머로 떠오르는 멋진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서는 화엄봉을 자세하게 보기 힘드니 보리암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이제 여러분들은 다섯번째 보물 보리암에 도착했습니다. 남해금산의 대표적인 보물로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리암에서 볼 수 있는 화엄봉, 일월봉, 상사암 등 대표적인 바위들에 대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방향을 보시면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던 화엄봉입니다. 화엄봉은 대장봉과 농주암의 왼쪽에 있는데 바위 모양이 '화엄(華嚴)'의 '화(華)'자 모양이라고 해서 화엄봉이라 하고 원효대사가 이 바위에서 화엄경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왼쪽부터 일월봉과 화엄봉)

그리고 10시 방향을 보시면 화엄봉 왼쪽에 세 개의 바위가 층암절벽을 이루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맨 위의 바위가 보이지 않아 일(日)자 모양으로 이단이고 탐대에 올라 전체를 멀리서 보면 월(月)자 모양으로 삼단으로 보여 일월봉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월봉에서 아래로 쪽 내려와 8시 방향 쪽에 거대한 동물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듯한 우람한 바위가 보이시나요... 바로 상사암입니다. 이 웅장한 상사암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암에서 바라본 상사암)

조선 숙종 때 전라남도 돌산에 살고 있던 돌쇠라는 총각이 남해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가 살고 있는 안집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돌쇠는 시름시름 앓다가 금산의 제일 큰 바위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있는 찰나에 그 사실을 알고 안집 여자가 바위에 올라와 상사를 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주 로맨틱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

습니다.

이렇게 금산의 보물들에 대해 이야기 들려 드렸습니다.

그럼 금산을 대표하는 보리암의 해설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정상부에 가깝게 위치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보리암은 신라 신문왕 3년(683년)에 원효대사께서 창건하고 수도하던 절로서 낙산사 흥련암,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신도들이 찾는 곳이며, 계절 따라 다르게 변하는 금산의 경치를 보기위해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드론으로 본 보리암 전경)

금산의 명칭에 대한 유래는 보리암 중수지에 의하면 금산의 옛 산명을 보타산이라 불렀는데 산 정상부가 거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원효대사가 찾아와 초막을 짓고 수도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후, 그 자리에 절을 짓고 빛 광(光)자를 써서 보광사라 하고, 산 이름을 보광산(普光山)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후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큰 뜻을 품고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렸는데 뜻 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곳 보광산에서 100일 기도를 드린 후에 조선을 창건하였다는 설화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 산에 보은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궁리하던 끝에 영구불멸(永久不滅)의 묘안으로 보광산에 비단 ‘금(錦)’자를 하사하여 금산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그 후 1660년에 현종이 이 절을 왕실의 명복을 비는 축원당으로 삼으면서 보리암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리란 범어의 보디에서 음을 딴 것으로 한자로 표기하면 보제(菩提)라 읽을 수 있으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깨달음을 얻는 지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암은 최고의 깨달음을 위해 수도하는 도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암의 주불전인 보광전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75호로 지정된 목조 관세음보살좌상 불감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목조 불감은 향나무에 금분칠이 되어 있으며, 중앙에 관세음보살좌상을 모시고 왼편에는 남순동자를 오른편에는 해상용왕을 두고 있습니다.



(보광전)

(목조 불감)

보광전 왼편에 있는 종각을 지나 아래 계단으로 내려오면, 커다란 해수관음보살상이 세워져 있고 도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된 보리암전 삼층석탑이 있는 탑대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 드린 3대 기도도량 혹은 관음도량은 모두 바닷가에 위치하는데요. 이는 경전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 인도의 보타낙가산이며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음보살과 관련된 사찰은 바닷가에 위치하거나 내륙이더라도 물과 관련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며 여기 보리암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수관음상)

그럼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자에 자신 있으시고 불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관세음보살은 인간세계를 보고 듣고 살피는 보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다른 보살상을 보셨다면 직접 비교해서 찾아보세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특징으로는 손에는 감로수가 든 정병을 들거나 연꽃을 잡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에는 스스로 아미타불의 화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불의 입상이나 좌상이 들어있는 보관을 씁니다.

이 해수관음보살상은 1996년도에 남해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탑대에 모셔졌으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헬기로 이송하여 봉안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줄이구요. 이제 이 탑대의 주인공인 석탑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삼층석탑)

보리암전 삼층석탑은 가락국 김수로왕의 비 허태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파사석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있으나 돌 성분으로 보면 금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이 대부분입니다. 석탑의 양식은 창건 시기인 신라시대가 아닌 고려시대 양식에 가까워 중간에 수리 또는 보수가 되어 형태가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삼층석탑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단부에 나침반을 놓아보면 놓는 위치에 따라 동서남북 자침의 방향이 달라져서 고대의 전설이 깃든 석탑을 더욱 신비롭게 합니다. (나침반으로 자기혼란 관찰)

오늘의 해설을 마치기 전에 보리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멋진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팔배나무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5월이면 배꽃처럼 나무 전체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은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잎은 모두 떨어지고 밝은 붉은빛을 띠는 팔처럼 생긴 열매를 가지마다 한가득 매달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가 붉은색으로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이 팔배나무로 많은

새들이 몰려들어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팔배나무 흰꽃이 핀 모습)



(팔배나무 열매)

여러분 오늘 귀중한 자연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경관과 자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동하는 동안 보셨던 금산의 멋진 보물들 기억이 나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약속들 모두 기억하시죠? 자연은 돌멩이 하나라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했지요.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한분한분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이곳에 왔을 때 삼월에는 사스레피나무의 지릿한 향을, 4월 중순에는 온산을 뒤덮기 시작하는 연한 싉족의 아름다움을, 7월에는 만개한 노각나무를, 11월초에는 비단을 둘러친 듯한 금산의 단풍을 더 멋지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우리의 후세들이 더 멋진 금산의 풍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 곳 남해 금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